



#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4. 6. 19.

## 한국산업위생협회

### AI & 인공지능 Newsletter

- [여적] [괴물 AI칩 - 경향신문 \(khan.co.kr\)](http://khan.co.kr)
- 'AGI 시대' 어떻게 준비할까... "AI 윤리·안전성 세분화부터" - ZDNet korea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045281?fbclid=IwAR1nq5gVzVCCrmC5lgrUTmHoT3qFbgz12YG\\_Xx7hDpyfHV36kTKW9GH2EcQ](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045281?fbclid=IwAR1nq5gVzVCCrmC5lgrUTmHoT3qFbgz12YG_Xx7hDpyfHV36kTKW9GH2EcQ)
- [유엔, 첫 인공지능 결의... "악의적 AI 개발, 인권·자유 약화 위험" | 중앙일보 \(joongang.co.kr\)](http://joongang.co.kr)
- [\[특별기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미래와 가능성-경희대 김인한 교수 - 국토일보 \(ikld.com\)](http://ikld.com)
- [\[김병필의 인공지능 개척시대\] 머지않아 도래할 인간 수준 인공지능 | 중앙일보 \(joongang.co.kr\)](http://joongang.co.kr)
- [AI 전문가들 "법·제도 마련하고 글로벌 규범 경쟁 뛰어올라 리더십 발휘해야" \[한국포럼\] \(hankookilbo.com\)](http://hankookilbo.com)
- [AI 혁명이 초래한 대학의 위기 | 한국경제 \(hankyung.com\)](http://hankyung.com)
- [정부, 'AI 연구거점' 만든다...2028년까지 360억 투입 :: 공감 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http://newsis.com)
- ["인간 살상 킬러 로봇, 이젠 현실" ...美中, AI 군비 통제 회담 나선다 \(chosun.com\)](http://chosun.com)
- [\[연중 기획 혁신창업의 길\] AI로 반도체 패키징 검사하니 60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 중앙일보 \(joongang.co.kr\)](http://joongang.co.kr)
- [\[데스크가 만난 사람\]"AI, 전기처럼 어디서나 쓰일 것... 영화 '매트릭스' 같은 파국 막아야" | 동아일보 \(donga.com\)](http://donga.com)
- ["AI가 전문직도 대체... 다차원으로 문제 해석하는 능력 키워야" | 동아일보 \(donga.com\)](http://donga.com)

###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 2)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 1)지원대상 :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정부·국회

위험 표지판 부착 인증해 보세요!

**핵심 슬로건과 위험 표지판 배포 ... “캐시워크”에서 인증 참여 이벤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근로자의 직접적인 안전행동을 유도하는 “위험 표지판” 부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은 전국 산업현장 내 위험요인·구역에 위험 표지판 부착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전국에 조직된 39개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집중 전개 중이다.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 인증 챌린지』는 6월 3일부터 캐시워크 모바일앱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위험 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산업현장의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일반근로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인증 참여방법은 사업장 내 ① 위험요인·구역 발굴 ② 위험 표지판 부착 전 사진 인증 ③ 위험 표지판 부착 ④ 부착 사진 인증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희망자는 ▲공단에서 제작·배포하는 슬로건 및 위험 표지판 ▲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위험 표지판 시안 ▲자체 제작·구입 위험 표지판 등을 사업장에 부착 후 인증하면 된다.

표지 부착 완료자에게는 상품 소진 시까지 커피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장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이 전국 산업현장에 확산되어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623](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623)

올해 많은 비 예상,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로 대비하세요

**- 기상예보 수시 확인, 집중호우 시 작업중지 등 비상상황 대비 철저 당부**  
**- 추락, 붕괴, 감전, 중독·질식 등 여름철 건설현장 사고에 각별한 주의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별 사고사례,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어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자주 관측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강·하천 주변에 위치하거나 지대가 낮은 건설현장, 맨홀·배수시설 공사현장 등은 집중호우 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장마철에는 철골공사 중 빗물에 미끄러져 추락할 우려가 커지므로 우천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빗물이 스며들어 연약해진 지반은 무너지기 쉬우므로 굴착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흙막이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한다.

또한 높은 습도와 땀으로 인해 감전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나 맨홀·배수시설 공사 시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질식도 주된 사고유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 관리자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장마철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침수, 붕괴 등 장마철 대형 재난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집중호우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625](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625)

**폭염·호우·태풍 대비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유비무환입니다!**

**-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 점검 점검 -**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12일(수)에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모든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집중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여름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해 나가겠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여름철 온열질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657](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657)

**(참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준수'는 대형건설사부터!**

**- 6.14.(금), 10대 건설사 대상 「폭염대비 온열질환 간담회」 개최  
- 대형건설사 자체 온열질환 예방 대책 우수사례 적극적 홍보 약속**

6.11.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 영향예보 '주의단계'가 발령되고, 폭염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현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이행 여부를 일제히 지도·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등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6.14.(금)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형건설사가 모범적으로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22.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건설사와 공유하는 한편, 각 건설사에서 수립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의 건설사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이외 휴식, 작업시간 조정·단축, 작업중지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자체 대책에 포함한 이행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한 10대 건설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 우수사례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다음 주부터는(6.17.~9.13.)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과 단계별 대응조치 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676](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676)

## 안전보건공단

###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반도체산업, 산업안전 상생협력포럼의 첫 문을 열다!

- 중소 협력업체의 중대재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
-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릴레이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업종·지역 전반에 더욱 폭넓게 확산하여 중소 협력업체의 중대재해를 줄이고, 상생과 연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 「2024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한다.

본 포럼은 6월 18일 반도체 업종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자동차, 통신, 철강, 화학 등 8개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업종의 대기업과 협력업체 종사자, 자치단체, 학계,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첫 시작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으로, 업종을 대표하여 SK하이닉스와 220여 개 협력업체 종사자 등 3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반도체 업종은 복잡한 제조 공정, 외부와 밀폐된 공간 사용, 화학물질 취급 등으로 인해 유해·위험요인이 다양하다. 특히, 안전·보건 투자 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서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주간 사망사고 속보

- [5/30, 전남 목포시] 산소절단기로 해체하던 중 폭발
- [5/31, 충남 당진시] 덤프트럭이 넘어져 인근 근로자 깔림
- [6/3, 경남 김해시] 타공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끼임
- [5/24, 충남 천안시] 식생블럭 운반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림
- [6/3, 전남 장성군] 승용예초기에 탑승하여 내려가던 중 넘어져 예초기 칼날에 베임
- [6/3, 경기 화성시]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작업발판 설치 중 떨어짐
- [6/10, 경기 화성시] 고정된 테이블 리프트 상판이 하강하여 상판과 바닥 프레임 사이에 끼임
- [6/9, 서울 은평구] 배전반 스티커 부착 중 감전
- [6/11, 경기 남양주시] 지붕재 교체 작업 중 떨어짐
- [6/11, 경기 화성시] 압출기 냉각수 밸브 점검 중 끼임
- [6/7, 경기 가평군] 지붕재 교체 작업 중 떨어짐
- [6/11, 광주 서구] 마감재 철거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 [6/11, 경남 창원시] 양망기 작업 중 양망기에 끼임
- [6/13, 경기 안성시] 컨베이어 조립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
- [6/14, 서울 마포구] 굴착기로 움직이던 개구부 덮개가 떨어져 맞음
- [6/14, 경북 칠곡군]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던 중 떨어짐
- [6/16, 경기 화성시] 지게차로 들어올린 철제형강 하부에서 도색작업 중 떨어지는 형강에 맞음
- [6/15, 충북 충주시] 벽돌 적재설비 점검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설비에 끼임
- [6/17, 충북 음성군] 모래 보충 작업 중 토사에 깔림
- [6/16, 대구 서구] 천막 설치 작업 중 떨어짐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제28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 품평회 수상작 알림**

「제28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 품평회 심사결과 첨부와 같이 수상제품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5030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산업현장, 안전 신기술 여기 다 있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제7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안전 신기술 공모전」은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7회째로 진행되었으며, 안전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은 물론 국내 안전 산업시장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조성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산업현장에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60개팀이 지원하였으며 최종 10개팀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로봇과 드론을 직관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한 (주)에이엠오토노미(대표자 신용득)에게 돌아갔다. 이 제품은 GPS 음영구역에서도 점검 결과와 위치를 실시간 매핑하며 기록하는 장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선정된 팀에게는 상금(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100만원)과 함께 국제안전보건 전시회 공동부스참가, 컨설팅 및 테스트베드 제공, 기술보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수상 기업들의 기술이 산업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질 바란다”라면서 “공단은 국내 안전보건 스타트업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029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취업지원 멘토링, 안전역량 “쑥쑥”**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링데이」 ... 지역 대학생 만족도 높아**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6월 13일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와 공동으로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멘토링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멘토링데이’는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청년들에게 지역 내 공공기관·대기업 견학 및 현직자와의 소통 기회를 제공해, 기업별 특성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견학과, 안전보건 가상현실(VR)체험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체험기회와 안전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건설 분야 현직 실무자와의 멘토링을 실시하여 공단의 업무소개 및 조직문화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여 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부터 시작된 ‘멘토링데이’는 이번에 참석한 울산과학대학교 학생 40여 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500여 명의 취업 준비 학생들에게 직무소개 및 진로상담을 실시했다. 행사 이후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7회 기준) 평균 95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 조직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공기관이다”라면서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이 장차 미래의 우수한 안전산업인력으로 성장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032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한국과 일본의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 비교

코펜하겐 심리사회적 설문지의 매력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산업보건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 Korean Occupational Stress Questionnaire)를 보거나 사용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구가 개발되어 한국에서 수많은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이루어졌고, 직중간 비교를 할 수 있었으며, 일터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BJSQ(Brief Job Stress Questionnaire)라는 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KOSS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으며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한국 KOSS의 개요**

먼저, **KOSS**는 2002년 박정선 등의 1차 연구, 2003년 장세진 등의 2차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근로자가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Job stressor)**을 파악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물리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8개 영역의 4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리환경을 제외한 7개 영역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도 있습니다. 이 도구에 적용된 주요 직무스트레스 모델은 직무긴장모형,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이며, 여기에 한국적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하는 요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논문\]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의 측정 및 표준화, 2005](#)

**일본 BJSQ의 개요**

반면, BJSQ는 2000년에 미국의 일반 직무 스트레스 설문지(GJSQ)를 활용하여 57문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도구는 **직무요구-자원(Job demand-resource)**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구성을 보면 직무 스트레스 요인 17문항, 스트레스 반응 29문항(정신적 반응 18문항, 신체적 반응 11문항), 완충 요인(즉, 사회적 지지) 9문항, 만족도 2문항(가정생활만족, 업무만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3문항 단축형 설문지도 별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82/>

**서론**

코펜하겐 심리사회학적 설문지는 2000년 덴마크 직업환경연구센터에서 만들었습니다. 주요 개발자는 TS Kristensen, V Borg 입니다. 이 도구는 직장에서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차 개정판까지는 덴마크 직업환경연구센터에서 만들었지만, 3차 개정판은 COPSQ 국제 네트워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도구가 다양한 국가에서 선택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OPSQ 국제네트워크 홈페이지](#)  
[코펜하겐 심리사회적 설문지, 3번째 버전](#)  
[\[논문\] COPSQ 2 한국어판](#)

COPSQ III (3차 개정판)에서 다루는 직무스트레스 요인들

COPSQ III 에 등장하는 요인(factor)들은 기존 설문도구의 요인보다 한 레벨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가령 **직무요구(demand)는 5가지로 세분화**됩니다.

- 양적 요구 (quantitative demands)\*
- 업무속도 (work pace)\*
- 인지적 요구 (cognitive demand)
- 감정적 요구 (emotional demands)\*
- 감정숨김요구 (demands for hiding emotions)\*

다음으로 **업무조직 및 업무내용(Work Organization and Job Contents)**이라는 개념으로 묶여 있는 5개의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영향력 (influence at work)\*
- 발전가능성 (possibilities for development)\*
- 업무다양성 (variation of work)
- 업무시간제어 (control over working time)\*
- 일의 의미 (meaning of work)\*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83/>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빌리티(Civility)**

직장내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괴롭힘'

직장에서의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괴롭힘'입니다.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 정신질병의 원인을 살펴보면 '괴롭힘'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가 의무화되면서,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내 괴롭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선 2가지 사례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62세인 스미스씨는 한 서비스 회사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사인 존은 정기적으로 그를 '늙은이'라고 부릅니다. 스미스 씨가 60세 생일이 지난 후, 존은 그에게 언제 은퇴할 계획인지 반복적으로 물었고, 빨리 젊은 피를 데려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독감예방접종을 권고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존은 "늙은이들이 독감에 걸리더라도 나는 별로 마음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그 얘기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고 따져 묻자, 존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례2>** 20세 영희씨는 한 콜센터에 입사하였습니다.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후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적이 부족하다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상사는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제한하였고, 초과수당 없이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물리적 폭행은 하지 않았으나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고통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84/>